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erson-Oriented Guidance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양혜연(Hye Yeon Yang)¹⁾

양성은(Sungeun Yang)²⁾

ABSTRACT

The premise underpinning this research is that cognitive evaluation is the starting point of children's emotional experience. It then went on to investigate how parents' person-oriented guidance affects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dditionally, children's ego-resilience was analyzed as a variable that affects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as a mediator between parents' person-oriented guidance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 purposive sampling was conducted in 4 elementary schools in metropolitan areas and made use of 466 students in 4th and 5th grade as research subject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ly, the more frequently parents used person-oriented guidance, the more children exhibited higher levels of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econdly, vitality, peer relations, optimism, curiosity, emotional regulation, maternal person-oriented guidance were found to affect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order of relative significance of that influence. Thirdly, children's ego-resilience was found to intermediate parents' person-oriented guidance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In conclusion, individual children's evaluations of parental verbal stimuli was found to influence

* 이 논문은 2012년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

²⁾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ungeun Yang, Consumer and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100 Inha-ro, Nam-gu, Incheon, 402-751, Korea
E-mail : syang@inha.ac.kr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especially more significantly through the mediation of children's ego-resilience.

Key Words :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인성지향적 지도(person-oriented guidance)

I. 서 론

전통적으로 지능은 보다 안정적이고 불변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환경적 경험이나 훈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전적으로 결정된 지적 능력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지능(IQ) 검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되어 왔지만, 지능의 본질에 대해 IQ를 유일하면서도 일반적인 능력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여러 연구들(Honzik, Macfarlane & Allen, 1948; McCall, Applebaum & Hogarty, 1973; Sameroff, Seifer, Baldwin & Baldwin, 1993)을 통해 지능이 개인의 능력보다는 지적 수행을 측정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상당히 변화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에, 지능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서지능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소통과 리더십이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서지능이 일반 지적 능력과 성격요인의 공헌을 넘어서 실생활에서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삶에서 성공을 하는데 있어 지적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주장되기도 하였다(Goleman, 1995).

이러한 정서지능은 인간의 정서와 인지를 통합한 개념으로, 자신의 정서경험과 정서가 개입된 사회적 교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서 정서를 표현하고, 이해하고, 정서적·인지

적 성장의 향상을 위해 조절하며, 정서에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Salovy, Mayer, & Caruso, 2000), 정서와 사고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정서지능은 단순히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얼굴표정에서 감정을 파악하는 간단한 것 으로부터 더 복잡하고 통합적인 것까지의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

또한, 여러 학자들은 실패나 좌절에 대해 더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는 끈기, 실패를 이기고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동기화, 타인을 이해하고 격려하여 협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정서지능의 핵심능력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Mayer & Salovey, 1997; Goleman, 1995). 이러한 능력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의욕을 잃지 않게 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순간적인 만족감을 지연시키며, 기분을 조절하여 사고능력을 방해받지 않게 하며(Lee, 2005; Seo, 2007), 사회성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같은 정서지능의 긍정적 역할들은 아동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예측치로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은 정서지능을 학교나 가정, 직장에서의 여러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지적하고 있으며, 약물남용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Brackett, 2001; Formica, 1998; Mayer,

Perkins, Caruso, & Salovey, 2001; Rubin, 1999). 국내에서도 정서 지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가정환경(Lee, 2006), 학교적응(Seo, 2007; Chon, 2010; Jeoung, 2003), 부모의 양육(Kim, 2012), 게임중독(Kim, 2007; Kim, 2011), 가정폭력(Lee, 2012) 등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업능력이 향상되고, 또래관계가 원만하다는 기능적인 측면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많은데, 이들 연구들은 아동이 긍정적인 발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서발달이 선행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은 가정에서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작된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정서상태를 인식하고 이러한 정서상태를 명명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며, 이를 사회적 상황과 연관시키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서의 사회화 과정은 부모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관찰을 통해 간접적인 정서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정서지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Alegre, 2011; Cho, 2007; Jackson, 2000), 정서지능이 대두된 이래 많은 학자들(Algreo, 2011; Downs & Smith, 2004; Downs & Strand, 2008; LaCava, Golan, Baron-Cohen, & Mayles, 2007; Mayer & Salovey, 1996)은 자녀의 정서지능이 적합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부모가 조력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일례로, 어머니가 어려운 퍼즐놀이를 격려해주는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과업수행에서 보다 열정적이고 인내심을 보이며 좌절감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업수행에 대해 비판적인 어머니의 아동은 이와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Dunn, Brown, & Bearsall,

1991; Nolen-Hoeksema, McBride, & Larson, 1997). 또한 자신의 정서상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는 아동의 정서에 대해 이해력을 증진시키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격려는 사회정서적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Eisenberg, Fabes, & Losoya, 1997).

국내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조절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ark, 2006), 아버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도 자녀의 정서지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2006). 또한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정서를 표현하도록 따뜻하게 격려해줄 때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다루고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할 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도 더 잘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Chung, 2002).

부모는 자녀에게 주로 얼굴표정이나 말로써 정서를 표현하는데, 특히 정서의 학습은 정서에 대한 정확한 언어표현에 의해 좌우된다(Mayer *et al.*, 1996).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거나 과장, 위장 혹은 대체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해 나가도록 가르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는 수용되는 정서와 수용되지 못하는 정서를 가려내고, 자신의 가족이나 문화에서 허용되는 정서적 표현의 범위를 배우게 된다.

또한, 아동은 부모와의 바람직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내적 긴장과 갈등을 적절히 늦추거나 해소하며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가는데(Bernstein & O'Neill, 1992),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 기제가 바로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외적, 내적 긴장원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으로, 낙관주의,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활동력, 또래관계

에서의 통찰력과 따스함, 능숙한 자기 표현을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다(Klohn, 1996; Kim, 2003 재인용).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친구나 주위 성인들로부터 호감을 얻으며, 또래관계에 대해 민감하고, 협동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강하다(Garmezy, 1983).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정서조절을 잘 하지 못하여 공격성, 좌절에 대한 과잉반응, 낮은 수준의 협동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Block & Block, 1980).

이런 점들로부터,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형태나 역할이 달라지기는 하나 자녀가 독립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부모의 언어와 자녀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유아기에만 치우쳐져 있고, 아동기의 경우 해당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서 이해에 대한 변화는 아동기에 와서 발달하는데(Chung, Chung, & Im, 2008),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되면, 아동들은 얼굴표정이 그 사람의 진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Gnepp, 1983; Reichenbach & Masters, 1983).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한 가지 이상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그 정서는 동시에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강도가 다를 수도 있음을 이해한다(Harter, Buddin, 1987; Wintre & Vallance, 1994). 이렇게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정서를 보다 정확하고 깊이있게 이해하기 시작

하는 시기이고, 부모-자녀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교류도 유아기에 비해 더욱 정교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부모는 그들의 가치 및 태도를 자녀에게 전달하고 통제하는데, 자녀의 행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자녀 자신, 부모, 타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호소와 타협을 말로써 표현하는 것을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person-oriented guidance)라고 한다. 부모의 이러한 지도는 자녀 스스로가 부모나 타인의 입장에 대한 배려와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행동을 통제하도록 한다(Kim, 2003). 즉 아동이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가 인지하고 행동에 대한 판단과 책임을 아동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부모는 자녀가 그 규칙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과 상황에 따른 새로운 선택에 필요한 설명을 제공해 줄 뿐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는 유아의 정서지능은 높이고(Han & Han, 2009; Kim, 2001; Kim, 2000; Lee, 2011; Park, 2007),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지도는 아동의 대인문제해결능력(Song, 2002), 유아의 정서지능(Kim, 2001; Jang, Kang & Heo, 2003)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를 아동이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 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아동의 자아탄력성 정도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정서지능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 및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장 많았고, 대학원졸 이상이 83명(17.8%), 고졸 이하가 43명(9.2%), 무응답이 103명(22.1%)이다. 어머니의 학력 수준은 대졸이 249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57명(12.2%), 대학원졸 이상이 55명(11.8%), 무응답이 105명(22.5%)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서 비취업모와 취업모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비취업모가 240명(51.5%), 취업모가 193명(41.4%), 무응답이 33명(7.1%)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어휘력의 급속한 증가로 단어의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사용하고, 각 단어가 지닌 여러 가지 의미를 이해(Berk, 2000)하며, 얼굴표정이 항상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Gnepp, 1983; Reichenbach *et al.*, 1983). 이로 인해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Piaget의 구체적 조작기의 후기 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지각이 가능하고, 10세 이후에 자아탄력성과 같은 정의적인 발달이 형성된다는 근거(Block & Kerman, 1996)를 토대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아동 466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단, 연구 시기가 12월인 것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6학년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218명(46.8%), 여학생이 248명(53.2%)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초등 4학년이 297명(63.7%), 초등 5학년이 169명(36.3%)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 수준은 대졸이 237명(50.9%)으로 가

2. 연구도구

1)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Lee(1993)가 제작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척도 중 인성지향적 통제유형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인성지향적 지도는 자녀의 역할재량권이 동기, 의도, 상황에 따라 부여되며 개인의 특징, 의도, 동기의 관점을 고려한 아동지향적, 부모지향적, 타인지향적 지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예.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조심하지 않으니깐 아까운 물건을 깨고 또 얼마나 놀라게 되니, 널 몹시 보고 싶어하실텐데 안 가면 섭섭하시겠다 등).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지도는 29문항,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는 28문항으로 총 57문항으로 구성되고, 척도의 응답 방법은 4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57점에서 최고 22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인성지향적 지도를 더 많이 한다고 아동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지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이고,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lock과 Kremen(1996)의 연구를 기초로 Park(1996)가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38문항이고, 하위요인으로 또래관계(peer relation) 8문항, 활력성(vitality) 8문항, 감정통제(emotional control) 6문항, 호기심(curiosity) 8문항, 낙관성(optimism) 8문항으로 구성되며, 이 중 또래관계는 친구의 말을 존중해주고,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며, 친구가 고민하면 내 일처럼 함께 고민하고,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척도의 응답방법은 4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의 범위는 최저 38점에서 최고 15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3) 정서지능

아동의 정서지능을 조사하기 위해 Mayer와 Salovey(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Moon(1996)이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용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시 중간 점수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3점 Likert식 척도를 4점 Likert식으로 수정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서지능 척도는 총 47문항이고, 하위요인은 정서인식(emotional perception) 8문항, 정서표현(emotional expression) 7문항, 감정이입(empathy) 7문항,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15문항, 정서활용(emotional utilization) 10문항으로 구성된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47점에서 최고 18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 문항의 적절성과 이해도,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12월 7일 인천의 B 초등학교에서 2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본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초등학교 5학년생 남자 8명, 여자 14명에게 실시되었다. 예비조사 시, 정서지능 척도가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응답이 '2점 보통이다'에 편중되는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의 척도를 4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본조사는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 4곳에서 4·5학년 19개 학급을 임의 선택하여 2011년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설문지를 실시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교사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였고, 551부가 수거되었다. 이 중에서 한부모 가정의 설문지 19부와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66부를 제외한 총 466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와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른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둘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셋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되거나 사라져야 한다. 세 번째 조건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져서 독립변인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완전 매개변인(perfect mediator)이라 하고, 독립변인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 경우를 부분 매개변인(partial mediator)이라고 한다.

또한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정서지능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1982)의 제안에 따르면, 매개효과가 0보다 큰 지의 여부는 Z검증으로 가능하다. Z검증 공식은 $z - value = \frac{ab}{\sqrt{a^2 s_b^2 + b^2 s_a^2}}$

이고, 여기서 검증식 분자 a는 독립변인인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매개변인인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이의 비표준화계수이며, b는 매개변인인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종속변인인 아동의 정서지능 사이의 비표준화계수이다. 분모 S_a 는 a의 표준오차이고, S_b 는 b의 표준오차를 말한다.

III. 결과분석

1.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지도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아버지가 인성지향적 지도를 할수록 아동의 또래관계($r = .236, p < .01$), 활력성($r = .257, p < .01$), 감정통제($r = .258, p < .01$), 호기심($r = .317, p < .01$), 낙관성($r = .176, p < .01$)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인성지향적 지도를 할수록 아동의 또래관계($r = .193, p < .01$), 활력성($r = .211, p < .01$), 감정통제($r = .233, p < .01$), 호기심($r = .283, p < .01$), 낙관성($r = .146, p < .01$)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본 바,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지도는 아동의 정서인식($r = .224, p < .01$), 감정이입($r = .276, p < .01$), 정서조절($r = .225, p < .01$), 정서활용($r = .214, p < .01$)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는 아동의 정서인식($r = .214, p < .01$), 감정이입($r = .256, p < .01$), 정서조절($r = .260, p < .01$), 정서활용($r = .193, p < .01$)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모가 인성지향적 지도를 할수록 아동의 정서지능 중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1>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son-oriented guidance, children's ego-resilience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N = 466)

	1	2	3	4	5	6	7	8	9	10	11	12
Parents' person-oriented guidance												
1. Paternal person-oriented guidance	1											
2. Maternal person-oriented guidance	.745**	1										
Ego-resilience												
3. Peer relation	.236**	.193**	1									
4. Vitality	.257**	.211**	.718**	1								
5. Emotional control	.258**	.233**	.533**	.509**	1							
6. Curiosity	.317**	.283**	.489**	.550**	.341**	1						
7. Optimism	.176**	.146**	.534**	.583**	.476**	.314**	1					
Emotional intelligence												
8. Emotional perception	.224**	.214**	.466**	.460**	.247**	.465**	.312**	1				
9. Emotional expression	-.004	.025	.344**	.357**	.161**	.104*	.364**	.171**	1			
10. Empathy	.276**	.256**	.508**	.426**	.366**	.439**	.341**	.464**	.121*	1		
11. Emotional regulation	.225**	.260**	.636**	.637**	.490**	.494**	.462**	.559**	.238**	.583**	1	
12. Emotional utilization	.214**	.193**	.337**	.360**	.450**	.212**	.448**	.182**	.226**	.272**	.316**	1

* $p < .05$. ** $p < .01$.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 변인과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변인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아동의 또래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인식($r = .466, p < .01$), 정서표현($r = .344, p < .01$), 감정이입($r = .508, p < .01$), 정서조절($r = .636, p < .01$), 정서활용($r = .337, p < .01$)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활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인식($r = .460, p < .01$), 정서표현($r = .357, p < .01$), 감정이입($r = .426, p < .01$), 정서조절($r = .637, p < .01$), 정서활용($r = .360, p < .01$)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감정통제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인식($r =$

.247, $p < .01$), 정서표현($r = .161, p < .01$), 감정이입($r = .366, p < .01$), 정서조절($r = .490, p < .01$), 정서활용($r = .450, p < .01$)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호기심이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인식($r = .465, p < .01$), 정서표현($r = .104, p < .05$), 감정이입($r = .439, p < .01$), 정서조절($r = .494, p < .01$), 정서활용($r = .212, p < .01$)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인식($r = .312, p < .01$), 정서표현($r = .364, p < .01$), 감정이입($r = .341, p < .01$), 정서조절($r = .462, p < .01$), 정서활용($r = .448, p < .01$)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2.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모든 변인을 한꺼번에 투입하여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더니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정서지능에 가장 큰 영향력이 미치는 순서대로 상대적 영향력을 도출하

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Table 1에 제시한 상관관계에서 .7을 넘는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이 있어, 각 변수들의 공선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차한계값은 .165-.804, VIF는 1.095-2.263으로 나왔으며, 공차한계값은 .10보다 크고 VIF는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The relative influence of variables on the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N = 466)

Step	Variables	β	R ²	ΔR^2	F
Step 1	Vitality	.64***	.412		174.65***
Step 2	Vitality	.40***	.495	.083	121.43***
	Peer relation	.38***			
Step 3	Vitality	.28***	.546	.051	98.87***
	Peer relation	.31***			
	Optimism	.28***			
Step 4	Vitality	.19**	.570	.024	81.40***
	Peer relation	.27***			
	Optimism	.29***			
	Curiosity	.19***			
Step 5	Vitality	.18**	.584	.014	68.86***
	Peer relation	.23***			
	Optimism	.25***			
	Curiosity	.19***			
Step 6	Emotional control	.15**	.597	.013	60.18***
	Vitality	.18**			
	Peer relation	.22***			
	Optimism	.24***			
	Curiosity	.16**			
	Emotional control	.14**			
	Maternal person-oriented guidance	.12**			

*p < .05. **p < .01. ***p < .001.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하위 변인인 또래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가 단계적으로 투입될 경우 59.7%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 중 활력성($F = 174.65, p < .001$)은 41.2%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여기에 또래관계($F = 121.43, p < .001$)가 첨가되면 설명력이 8.3%가 증가하여 49.5%의 설명력을 가지고, 낙관성($F = 98.87, p < .001$)이 첨가되면 설명력이 5.1%가 증가하여 54.6%의 설명력을 지닌다. 그 다음에 호기심($F = 81.40, p < .001$)이 첨가되면 2.4%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57%의 설명력을 가지고, 감정통제($F = 68.86, p < .001$)가 첨가되면 1.4%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58.4% 설명력을 지닌다.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가 부가되면 1.3%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59.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지도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에서는 활력성, 또래관계, 낙관성, 호

기심, 감정통제,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 순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고, 어머니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를 할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절차에 따른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지도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10.6% 설명했다($F = 43.27, p < .001$). 2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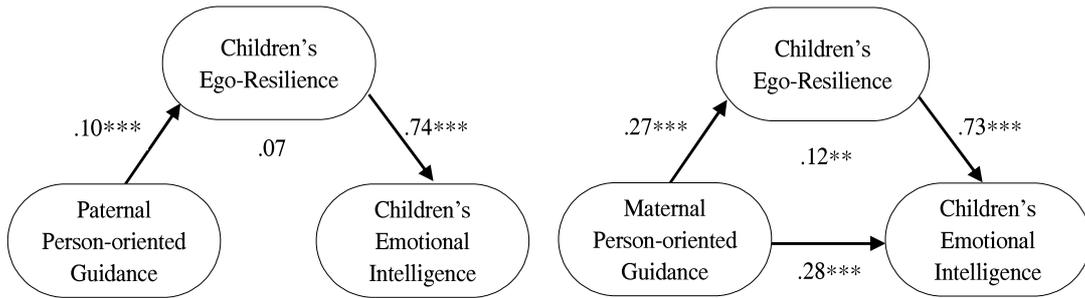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the children's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erson-oriented guidance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N = 466$)

Step	Variables	β	R^2	ΔR^2	F	Sobel test
① IV → MV	Paternal person-oriented guidance → ER	.10***	.106		43.27***	
② IV → DV	Paternal person-oriented guidance → EI	.29***	.083		29.52***	6.18***
③ IV*MV → DV	Paternal person-oriented guidance*ER → EI	.07 .74***	.591	.508	214.97***	
① IV → MV	Maternal person-oriented guidance → ER	.27***	.075		28.88***	
② IV → DV	Maternal person-oriented guidance → EI	.28***	.076		26.21***	5.18***
③ IV*MV → DV	Maternal person-oriented guidance*ER → EI	.12** .73***	.588	.512	203.54***	

Note. IV ⇒ independent variable, MV ⇒ mediated variable, DV ⇒ dependent variable

EI ⇒ emotional intelligence, ER ⇒ ego-resilience

* $p < .05$. ** $p < .01$. *** $p < .001$.



<Figure 1> Mediating effects of the children's ego-resilience

계에서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지도는 아동의 정서지능을 8.3% 설명했다($F = 29.52, p < .001$). 3단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59.1%의 설명력을 지닌다($F = 214.97, p < .001$).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Z = 6.18(p < .001)$ 로 나타났다($a = .248, Sa = .038, b = 1.090, Sb = .057$). 이와 같이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7.5% 설명했다($F = 28.88, p < .001$). 2단계에서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는 아동의 정서지능을 7.6% 설명했다($F = 26.21, p < .001$). 3단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58.8%의 설명력을 지닌다($F = 203.54, p < .001$).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Z = 5.18(p < .001)$ 로 나타났다($a = .205, Sa = .038, b = 1.046, Sb =$

.056). 이와 같이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이 부모의 언어를 인성지향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의 초등학교 4, 5학년생에게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에서 수집된 자료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가 인성지향적 지도를 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 중 또래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과 아동의 정서지능 중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부모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를 사용할 때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한

Kim(2003)의 연구,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한 Shin(2004)의 연구, 부모의 언어통제가 인성지향적일 때 정서지능이 높다고 한 Lee(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가 인성지향적 지도를 할수록 아동은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서 더 적응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인내하고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며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아탄력적인 사람이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인지적 능력도 우수하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Block과 Block(1980)의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 또한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정서지능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Jang *et al.*, 2003; Cho, 2003; Heo, 2003)과도 일치한다. 또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에 비해 정서지능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의 외부적 자극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에 비해 아동의 내적 능력인 자아탄력성이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해석된다.

셋째,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논하자면, 먼저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고, 동시에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므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나타내는 매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고,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지도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정서지능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지도보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정서지능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부분 매개로 하여 정서지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의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해 어머니가 보다 인성지향적 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개인 내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이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지도보다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지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대부분을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Yoo & Jeong, 2002)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두 변인과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정서지능을 촉진할 수 있는 부

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의 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에 한정하여 아동기의 정서지능 발달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정서지능은 평생에 걸친 발달과정이기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전생애적 발달관점에서 나타나는 정서지능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를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연구하였으나, 이는 아동의 지각과 실제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가 다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언어적 자극에 따라 발현되는 자녀의 반응이나 행동 등을 관찰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에 밑거름이 될 거라 판단된다.

References

- Alegre, A. (2011).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 What Do We Know? *Family Journal :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9(1), 56-6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k, L. E. (2000). *Child development*(5th ed.). Boston : Allyn & Bacon.
- Block, J. H., & Block, H.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s.) :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 : Erlbaum.
- Block, J.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rackett, M. A. (2001).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life spa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w Hampshire, Durham.
- Cho, B. S.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and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 Cho, B. W. (2007). The relationship of parent rearing attitudes and rearing attitude consistency between parents to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7(4), 105-134.
- Chon, B. G. (2010). *Relationship of perceived inter-parental conflict, emotional intelligence and school maladjustment of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Chung, O. B., Chung, S. H., & Im, J. H. (2008). *Emotional development & emotional intelligence* (2nd ed.). Seoul : Hakjisa.
- Downs, A., & Smith, T. (2004). Emo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social behavior in high-functioning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 34, 625-635.
- Downs, A., & Strand, P. (2008). Effective of emotions recognition training for young

-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Journal of Early and Intensive Behavior Intervention*, 5(1), 75-89.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 Eisenberg, N., Fabes, R. A., & Losoya, S. (1997). Emotional responding : Regulation, soci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In P. Salovey and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Educational implications*, 129-163, New York : Basic Books.
- Formica, S. (1998). *Description of the socio-emotional life space : Life qualities and activities related to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senior honors thesis. University of New Hampshire, Durham.
- Garnezy, N. (1983). Stressors in childhood. In 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New York : McGraw-Hill.
- Gnepp, J. (1983). Children's social sensitivity : Inferring emotions from conflicting c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05-814.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Han, M. K., & Han, Y. K. (200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young children's self-leadership : mother's verbal control style and mediated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6(3), 219-250.
- Harter, S., & Buddin, B. J. (1987).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simultaneity of two emotions : A five-stage developmental acquisition sequ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88-399.
- Heo, E. J.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verbal control modes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Honzik, M. P., Macfarlane, J. W., & Allen, L. (1948). The stability of mental test performance between two and eighteen years.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17, 309-324.
- Jackson, A. P. (2000). Maternal self-efficacy and children's influence on stress and Parenting among single black mothers in poverty, *Journal of family*, 21(3).
- Jang, Y. S., Kang, K. S., & Heo, E. J.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parental verbal control and young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0(2), 61-83.
- Jeoung, Y. J. (2003).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E. J.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 Kyun Kwa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J. (2012). *The effects of th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in the past and self-identity on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2000). *The impact of maternal attitude and maternal verbal control pattern on emotional quotient of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E. (2003).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linguistic control pattern, children's ego-resiliency an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E. (2011). Problem behaviors of violent or non-violent game addicted adolescents : emotional intelligence as a moderating variab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Bucheon, Korea.
- Kim, M. K.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uter game addictions and emotional quot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Gumi, Korea.
- Kim, S. H. (2001). *The influence of maternal verbal control on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 Korea.
- LaCava, P. G., Golan, O., Baron-Cohen, S., & Myles, B. S. (2007). Using assistive technology to teach emotion recognition to students with Asperger syndrome, *Remedical and Special Education*, 28, 174-181.
- Lee, E. S.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Lee, E. W. (2005). *Impacts of the affective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ollege life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Lee, H. Y. (2011). *The influence of family health on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S., & Chung, O. B. (2002).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 Relationships with parent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1), 17-35.
- Lee, K. H.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and children's social 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J. (2006). *The relationship of family environments to emotional intelligence among school children in the lower grad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Korea.
- Mayer, J. D., & Salovey, P.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Mayer, J. D., & Salovey, P.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invited lectures of Prof. Peter Salovey : the concept of new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 157-181.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Educational implications*, 3-31. New York : Basic Books.
- Mayer, J. D., Perkins, D. M., Caruso, D. R., & Salovey, P. (2001). Emotional intelligence and giftedness. *Roeper Review*, 23, 131-137.

- McCall, R. B., Applebaum, M. I., & Hogarty, P. S. (1973). Developmental changes in mental test performanc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3, Serial No. 150).
- Moon, Y. L. (1996). A measurement study of Korea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In *invited lectures of Prof. Peter Salovey : the concept of new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 75-89.
- Nolen-Hoeksema, S., McBride, A., & Larson, J. (1997). Ru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bereaved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855-862.
- Park, E. H. (1996).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resiliency, IQ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Park, M. O. (2007).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maternal verbal control sty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C. (2006).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 Reichenbach, L., & Masters, J. (1983). Children's use of expressive and contextual cues in judgments of emotion. *Child Development*, 54, 993-1004.
- Rubin, M. M. (1999).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role in mitigating aggression : A correlatio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aggression in urban adolescents*. Unpublished manuscript, Immaculata College, Immaculata, PA.
- Salovey, P., Mayer, J. D., & Caruso, D. R. (2000). Competing mod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R. J. Sternberg(Ed.).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2nd ed. 396-420,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eroff, A. J., Seifer, R., Baldwin, A., & Baldwin, C. (1993). Stability of intelligence from preschool to adolescence : The influence of social and family risk factors. *Child Development*, 64, 80-97.
- Seo, M. H. (2007). *Effects of children's 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haffer, D. R., & Kipp, K. (2010). *Developmental Psychology : Childhood and Adolescence* (8th ed.). Wadsworth : Cengage Learning.
- Shin, J. Y. (2004).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on ego-resilience of students in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ong, S. W.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verbal control mode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Wintre, M. G., & Vallance, D. D. (1994). A developmental sequence in the comprehension of emotion : Intensity, multiple emotion, and

- val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 509-514.
- Yoo, G. S., & Jeong, H. S. (2002). Young adults' perceptions of meanings and motivations of parenthood, *Korean Journal of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3), 39-47.
- Yoon, Y. S. (2006).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parental attitude, sibling relation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Korea.

2012년 12월 26일 투고, 2013년 3월 29일 수정
2013년 4월 16일 채택